

로저 그린 박사, 미국 기독교, 세션 19, 미국의 사회 복음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미국의 사회적 복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모를 누군가의 간단한 경건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에 대해 읽었지만, 그의 이름은 FD 모리스입니다. 이제, FD 모리스는 사회 복음 운동에서 라우센부시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조금 후에 했던 일을 영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FD 모리스는 오늘, 4월 1일, 그의 날짜는 1872년에 주님과 함께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D 모리스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는 유니테리언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국교회가 되었고 실제로 영국 국교회에서 성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수난주간에 대해 우리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현을 위한 폭력적인 노력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망스럽고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려는 유혹에 대한 바로 그 치료법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고통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조용하고 단순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고통 속에서 무엇을 겪을지에 대한 어떤 개념에 우리 자신을 감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그가 그의 고통 속에서 무엇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FD 모리스. 그는 몇 년 전 오늘인 4월 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아요. 강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과 세 가지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우리는 서론을 한 다음 기독교를 구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했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개신교 기독교는 미국의 기독교가 거의 해체되고 있으며, 본래의 모습이 아니며, 한때 가졌던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신교 설교자, 교사, 지도자, 작가들이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 개발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교리서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사서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당신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교리는 좀 지나치지만, 특히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감정의 확실성, 교리가 아니라, 교조가 아니라, 종교적 감정. 종교적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부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언급한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쉐라이어마허였고, 그 후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 종교적 감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쉐라이어마허가 전적으로 신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을 경험한 사람의 예로 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겠죠. 그는

이것의 훌륭한 모델이자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글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20 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 세 가지 전략에 대한 의문이 있나요? 그들이 하려는 일을 왜 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를 구하기 위해 이런 신학적 전략을 개발한 이유도 이해합니다 . 좋아요, 다들 그걸로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두 개의 전투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선은 20세기에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 그리고 전투선 측면에서 누구 편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선, 다윈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다윈주의는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매우 중요하며, 그는 진화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윈주의에 일어날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연구한 기독교의 더 자유로운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살펴보았거나 20세기에 접어들면 더 자세히 살펴볼 기독교의 더 복음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잠깐 생각의 모자를 씌워 봅시다. 다윈주의는 더 자유로운 쪽 , 특히 신앙주의에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신앙주의에서 비판을 받을까요? 신앙주의와 그들의 신학에 대해 그들이 종의 기원과 다윈의 아래로부터의 진화론을 비판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신앙주의는 그것을 비판할 만한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요? 여기서는 일종의 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데이즘은 어떻게 세상의 창조를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어떤 신학을 사용했을까요? 네, 매튜? 맞아요. 그래서 데이즘은 시계 제작자 신이고, 그는 시계를 감고, 작동시켰어요. 하지만 그것은 위에서 온 창조예요.

이것을 창조한 것은 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자연적 선택에 의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의 신에 의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라벨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 라벨을 붙이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신학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즘에는 자연신학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신학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추하다고 보았을까요, 아니면 아름답다고 보았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주이신 신이 설계한 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아래로부터 어떤 종류의 진화에 의해 생겨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주의자들은 정말로, 그리고 더 자유주의적인 개신교도들은 정말로 다윈주의를 발견하고, 정말로 다윈주의를 비판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복음주의에서, 복음주의자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윈주의에 대한 비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윈주의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요? 그들이 다윈주의를 비판하는 데 사용할 신학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형성된 방식인 성경과 7일 창조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입니다. 하지만 데이스트들이 자연신학을 사용하여 어떤 의미에서 다윈주의를 공격하는 반면, 복음주의자나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일종의 계시신학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에서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주의는 그의 진화론에 관해서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전투 라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의 이름은 찰스 호지입니다.

그리고 찰스 호지는 정말 성경적 관점에서입니다. 찰스 호지는 다윈주의란 무엇인가? 다윈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다윈주의에 도전했습니다. 찰스 호지라는 이름이 중요하지만, 그가 어디에서 가르쳤고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호지의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19세기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프린스턴이고, 제가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프린스턴은 신학교 측면에서 미국에서 정통성의 보루였습니다. 프린스턴은 미국에서 정통성을 유지한 위대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 19세기에 미국 개신교 생활을 지배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호지이고, 프린스턴에서 말하고 있고, 그는 다윈주의에 도전하고, 다윈주의가 뭔데요? 좋아요, 그럼 다윈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의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은 뭐죠? 그의 기본적인 답은 다윈주의가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지는 기독교인으로서 다윈주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윈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투선이 여기에 그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윈주의의 도전을 정말로 받아들였고 그 지점에서 다윈에 대한 꽤 강력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말해야겠지만, 중간 지점을 취하려고 시도한 다른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고 신이 창조했지만, 진화를 통해 창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믿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중간 지점을 택했지만, 호지나 프린스턴 신학이 가진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지와 그의 책, 다윈주의란 무엇인가?에서 얻은 다윈주의에 대한 꽤 중요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신학적으로 정통하다는 이유만으로 정통성을 정의했을까요? 맞아요. 그것은 정통성, 기독교, 개신교 정통성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린스턴에서 설교자나 교사일 뿐만 아니라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료는 일반 대중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었고, 등등. 그래서 그들이 19세기에 강력한 세력이 되어 개신교 정통을 발전시키거나 개신교 정통을 고수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전투선이 그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선은 다윈주의였고, 그게 그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투 라인은 물론 성경을 위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신의 개요에서 두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위한 전투.

좋아요. 성경을 위한 싸움은 종교 개혁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위한 싸움은 종교 개혁의 함성, 솔라 스크립투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는 전통과 성경에서 교리를 발전시키는 로마 가톨릭의 이해에 대한 전투 구호입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세계에서 교리는 전통과 성경 본문에서 발전했지만 교리를 정의하기 위해 성경 본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전투 구호, 오직 성경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으로, 그들이 주로 의미한 것은 신학의 발전을 위한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전투선, 성경을 위한 전투, 일어나는 일은 성경이 19세기에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타당성이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미 18세기에 데이스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19세기에는 유니테리언 등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성경을 옹호하면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부 옹호자들에게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옹호자들에게는 본문의 측면에서 여기저기에 실수가 있었을 수 있지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교리의 측면에서는 오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옹호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 수비수 두 명을 언급해 볼게요. 먼저 Archibald Alexander Hodge를 언급해 볼게요.

아, 그런데, 이 사진은 슬라이어마허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했듯이요. 하지만 우리는 아치볼드 알렉산더 호지라고 했죠. 아, 그는 찰스 호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Benjamin Warfield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호지와 워필드의 날짜를 보면, 둘은 약간 겹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주 조금 겹치죠. 호지는 86년에 죽고, 워필드는 1921년까지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가르칠 것 같나요? 물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은 여전히 아치볼드 알렉산더 호지와

벤저민 워필드, BB 워필드의 정통주의 옹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정통주의 신학인 프린스턴 신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성경의 무오성 교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무오합니다. 오류 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경 비판의 맹공격에 맞서 성경을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솔라 스크립투라의 날입니다. 좋아요.

이 모든 일에서 일어나는 일은 Charles A. Briggs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Charles Briggs. 좋습니다.

찰스 브릭스는 뉴욕시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친 장로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학교일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이 장로교 신학교가 무슨 이름인지 추측해 볼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요? 아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Union. 뉴욕시에 있는 Union Theological Seminary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Union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제, 저는 브릭스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아마, 그는 제가 그를 변호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유니언에서 성경 연구를 가르쳤을 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변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오류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오류들이 오늘날에는 유형학적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오류들이 성경 교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릭스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 본문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본문을 무오하다고 여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브릭스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브릭스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장로교회 내에서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어떤 면에서는 오류가 아닌 것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에 끌려가고, 그는 이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성경의 오류에 대해 말함으로써 문을 너무 많이 열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은 분열입니다.

브릭스는 유니언 신학대학을 떠났고, 자신의 교파를 떠났고, 장로교회를 떠났지만, 신학교도 장로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브릭스 사건과 브릭스 재판 이후부터 독립된 신학교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로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가 20세기에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학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Union Theological Seminary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그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브릭스 재판이나 브릭스 사건은 다른 많은 재판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신학교와 교회에서 많은 다른 재판과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들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성경의 무오성 교리를 놓고 큰, 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Hannah가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세상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지만,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스스로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부 신학교는

자유주의가 되었고, 남부 신학교는 성경 무오성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부 신학교에서 일종의 자유주의적 변태를 보셨죠. 그리고 그게 브릭스를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문을 이렇게 많이 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더 나아갈까요? 성경이 전혀 권위가 없게 되기 전에 문이 얼마나 더 열릴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한편, 남부 신학교와 남부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보수적입니다. 이제 질문은, 왜 이것이 깨졌을까요? 왜 이것이 남북을 깨뜨렸을까요? 남북을 깨뜨린 것은 어떤 문화였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북부에서는 훨씬 더 이질적인 사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Bart Ehrman으로 빨리 넘어가면, 여러분 중에 Bart Ehrman에 대해 수업이나 성경 연구 입문 수업이나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Bart Ehrman, 다른 사람도 있나요? Bart Ehrman으로 빨리 넘어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Wheaton College를 졸업한 Bart Ehrman이 쓴 *Misquoting Jesus*라는 책을 읽어보면, 글썄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 개의 전선이 그어졌고, 사람들은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원주의나 세상이 창조된 방식, 우리가 신과 그의 창조물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두 개의 전투 라인입니다. 좋아요.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5번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책을 두 번, 아마 세 번이나 읽었을 테니까요. 일주일에 한 장씩 읽는다면 이 책을 다 읽었을 테니까요. 이 책이 차갑다는 건 알겠죠. 그러니 Rauschenbusch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월터 라우센부시, 글썄요, 아직은 필요 없지만, 여기 월터 라우센부시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월터 라우센부시와 함께 세 가지 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의 삶의 하이라이트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복음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 복음이 미국 기독교에 기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하이라이트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책을 정말, 정말, 정말 주의 깊게, 정말 잘 읽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 기말고사에서 저는 책에서 천 개의 질문을 받았고, 기말고사에서 책에서 에세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책을 읽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Rauschenbusch의 삶에 대한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가 시작한 사역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몇 가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뉴욕 로체스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우센부시가 태어난 곳, 신학 수련을 많이 받은 곳, 그의 후기 생애와 죽음을 함께한 곳, 뉴욕 로체스터. 이제 한 사람, 한 작가가 뉴욕 로체스터를 불타버린 지역의 심장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지역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뉴욕 어퍼 스테이트에서 나왔습니다. 밀러파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물몬교도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피니이트 부흥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그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욕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한 작가는 뉴욕 로체스터를 최초의 미국 불타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라우센부시가 태어났을 때 뉴욕 로체스터는 매우,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불타운이었어요. 그 이유는 로체스터로 올라온 모든 무역, 모든 산업, 로체스터로 올라갔다가 로체스터에서 뉴욕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체스터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때,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야, 그는 틀림없이, 아니, 그건 번영하는 도시에 있었어, 특히 그의 후년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그의 출생지. 알았어.

거기에는 로체스터 신학대학이라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훈련을 받은 곳이 바로 로체스터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침례교 신학교였고, 그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교사였어요. 그가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죠. 신학교 자체,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우선 가족 자체, 그리고 신학교 자체예요.

가족 자체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독일계 배경을 가진 가족이었습니다. 책에서 그 배경에 대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그 배경에 대해 전부 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독일어를 사용하는 가족 출신입니다. 신학교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그것은 이중 언어 신학교였습니다. 이중 언어였기 때문에 수업은 독일어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교회, 신학교, 모든 것이 이중 언어입니다.

좋아요. 이제 책을 읽으면 Rauschenbusch가 독일로 여러 번 여행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잠시 동안 미국과 독일의 이중 국적자였던 셈이죠. 가족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어와 독일어를 모두 공부했지만, 미국식 장면뿐만 아니라 독일 신학도 이해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쉴라이어마허와 같은 사람들처럼 독일 신학을 미국식 신학적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세계에 매우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미국 생활과 문화, 그리고 미국 교회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영어와 독일어로 글을 쓰고, 영어와 독일어로 말하고, 등등.

좋아요. Rauschenbusch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1886년 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왜 1886년이라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1886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두 번째 읽었을 때, 세 번째 읽었을 때, 1886년이 그의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해줄 수 있나요? 추측해 볼 사람 있나요? 축복합니다.

네. 그는 1886년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1886년에 그는 뉴욕으로 이사했어요.

뉴욕시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목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 뉴욕시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정면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라우센부쉬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는 1886년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86년부터 1897년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교회의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것 알아차려야 합니다.

글쎄요, 교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뉴욕 시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냥,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좋아요. 뉴욕의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뉴욕 시의 서쪽에 있는, 이 동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명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에? 헬스 키친'이라는 곳인데도요. 헬스 키친. 그가 이사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헬스 키친. 지금도 헬스 키친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그게 동네에 대해 뭔가 말해주나요, 헬스 키친? 저는 헬스 키친에서 목회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거기에 있었고 헬스 키친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는 헬스 키친의 교구민들 사이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그는 교구민들 사이에서 매우 근면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근면한 사람들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지만 사람들은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빈곤 속에서 살고 있으며 때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인데, 그는 아주 친절한 중산층, 사랑스러운 집, 사랑스러운 교회, 사랑스러운 신학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그것은 그에게 매우 깊고 오래 지속되는 인상을 남깁니다.

극심한 빈곤, 사람들의 비참함, 사람들이 항상 겪어야 했던 힘든 노동 등등.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는, 그는 일종의, 그는 매우 중요한 무언가로 변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 11년 동안, 이 11년 동안, 그리고 사실 그의 남은 인생 동안, 하지만 이 11년 동안, 그는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의 남은 인생 동안 사실일 겁니다. 그는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에반스가 그를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알아차리실 겁니다. 에반스는 그를 복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헬스 키친에서 그의 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의미에서 그의 복음주의적 뿌리와 그의 복음주의적 신념 등을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언급한 이것의 한 예는 그가 드와이트 L. 무디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우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라우센부시 당시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드와이트 L. 무디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노스필드에 갑니다. 그리고 노스필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그는 때때로 노스필드에 무슨 이유로 가요? 왜 노스필드에 가야 할까요? 그 외에는 무디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디의 지휘 아래 노스필드에서 일어난 일은 부흥 집회였지만, 노스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스필드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무디가 노스필드에서 여름 성경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성경, 특히 선지자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컨퍼런스는 복음주의 성경 컨퍼런스였고, 때때로 라우센부시가 무디를 방문하여 그 여름 성경 컨퍼런스에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정말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가 당신에게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금요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그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침례교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파적 소속 측면에서 그는 침례교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적어두고, 그러면 제가 잠깐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Rauschenbusch가 침례교와 감리교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리교는 아니었지만 감리교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례교와 감리교가 원시 기독교를 가장 잘 고수하거나 원시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집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원시 기독교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그 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기독교, 1세기, 2세기, 초기 교회, 신약, 초기 교회 기독교. 그는 침례교와 감리교가 원시 기독교와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해야 할 것은, 그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계층적 교회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계층적 교회가 원시 기독교의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계층적이고 관료적인 교회가 때때로 민주 사회에서 교회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민주 사회, 민주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통치했고, 그는 감리교와 침례교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의 의견으로는, 그것은 원시 기독교의 가장 좋은 표현인 반면, 계층적 교회는 민주 사회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침례교와 감리교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라우센부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여기서 시작하게 했습니다.

몇 분 후에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몇 분, 아니, 10초. 10초가 있습니다. Walter Rauschenbusch,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다른 종류의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저 여러분이 강조하도록 돕고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책에서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썩은 라우센부시.

그는 그룹을 형성하고, 그룹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룹은, 당신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은 당신의 인생에서 다시 볼 수 있고, 그것은 왕국의 형제단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이 그룹의 이름입니다, 왕국의 형제단.

좋아요. 이제, 왕국의 형제단은 Rauschenbusch가 다른 침례교 설교자, 동네 목사, 그리고 동네의 다른 동정적인 기독교인을 형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걱정할 것이고, 그들의 초점은 사회적 문제에 맞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Rauschenbusch와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여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와 다른 목사는 여전히 영적 삶, 죄, 타락, 그리고 구원, 거룩함, 그리고 영생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믿고 전파했고,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왕국 형제단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복음 메시지를 믿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복음 메시지의 끝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또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관심,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살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국 형제단은 그러한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동네에서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랍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력한 두 가지는 더 나은 주택이었고,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 뉴욕시에 있을 때마다 방문하게 될 Lower East Side Tenement Museum을 언급했습니다.

더 나은 주택, 이 사람들이 사는 주택은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한 두 번째 일은,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놀이터였습니다. 왜?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매우 번잡한 뉴욕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어머,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해. 그러면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 위험에 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인 왕국의 형제단, 제목의 밑바탕에 있는 왕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우센부쉬의

신학은 왕국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형제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왕국 형제단에서 11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 11년 후, 그는 1897년에 로체스터로 돌아갑니다. 좋아요, 당신은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가, 제 말은, 당연히, 뉴욕 로체스터에서 사역을 하게 될 거고, 신학교에서 일하러 돌아갈 거고, 이런저런 이유로요.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아내와 가족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요. 그는 그곳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평생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집에 가야 한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기를 읽은 사람이 말해 보세요. 전기를 읽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누구? 아니요. 가장 큰 이유는 신체적 이유였어요.

라우센부쉬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우센부쉬,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그는 청각 장애로 목회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에 응하기로 결심했고, 침례교 신학교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에서 이 비극은 하나님께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뉴욕시에 머물렀다면 그랬을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심지어 연설을 하러 나갔을 때, 책에서 읽을 수 있지만, 연설을 할 때 가끔 통역자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고, 사람들이 질문이 있으면 대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의 몇 년 동안 Rauschenbusch는 엄청난 양의 글을 쓰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장애가 없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그를 그의 세대에서 미국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형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Rauschenbusch는 20세기 초에, 그는 20세기 초에, 아마도 Cotton Mather가 그보다 더 일찍, 또는 Edwards가 18세기에, 또는 Finney가 19세기에 그랬던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에 Rauschenbusch를 기독교 사상의 진정한 형성자로 보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그 지역에서 보내고 1918년 뉴욕 로체스터에서 죽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짜인데, 1차 세계 대전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을 때 막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는 또 다른 일은 로체스터를 칼빈이 제네바를 만든 것처럼, 기독교가 공공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체스터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로체스터에서 정치적 직책을 맡은 적이 없지만, 로체스터 시의 공공 정책에 대한 신학적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기독교가 더 광범위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로서 라우센부시와 함께 정말, 정말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영향력이 크고, 저는 항상 칼빈의 제네바가 그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선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의 삶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반의 전기에 대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저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의 삶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교과서에서 금요일 세션에서 확실히 질문을 받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Rauschenbusch의 삶에 대해 말한 것이 있나요? 네, 그는 매우 좋은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세 명이나 네 명의 자녀를 두었고, 매우 좋은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에서 사회 복음이 기여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가 가족을 바라보는 방식이 가족에 대한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을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여겼고, 그런 가족 생활도 했습니다. 아내, 아이들 등 아주 건강한 가족 생활이죠. 그리고 사회 복음의 기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Rauschenbusch에 대한 다른 게 있나요? 그에 대해 다른 게 생각나나요? 꽤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Walter Rauschenbusch는 의심할 여지 없어요. 계속하세요, Aaron,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그의 아버지의 가장 큰 영향은 아들을 통해 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월터의 선생님, 교수, 멘토, 가이드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로체스터에서 평생을 살았고 침례교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아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월터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세대로 들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한 가장 중요한 기여는 아마도 월터를 통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후에 그는 반발을 경험했고, 그 반발의 이유는 2세대 사회 복음주의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라우센부쉬가 복음주의 기독교와 사회 복음 운동 사이에서 한 것처럼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적인 것들을 놓아버리고, 사회 복음적인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의 사회 복음적인 것들이 꽤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동안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월터 라우센부시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사회 사역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라우센부시에 대한 다른 게 있나요? 좋아요. 적어도 신학을 시작해 봅시다. 오, 아니요, 신학을 하기 전에 여기서 그의 작품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월터 라우센부시의 작품을 A, 그의 생애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좋아. 그래. 가자.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는 또한 Brotherhood of the Kingdom을 적었습니다. 그러니 보고 싶으시다면, 거기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 작은 만화를 보세요. 누군가가 거기서 노동하는 걸 보세요. 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그것을 어딘가에서 찾아서 거기에 넣었어요.

저한테는 꽤 놀라운 일이에요. 저에게는 이게 한 걸음이고, 월터 옆에서 누군가가 고생하는 만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건 큰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구글에서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Walter Rauschenbusch 자신은 어떨까요? 그리고 신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우선, 그는 방대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물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작품은 그가 1907년에 쓴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입니다.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 이것은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에서 한 것은 사회 복음의 역사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그는 사회 복음의 아버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복음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글래든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워싱턴 글래든은 목사였고 사회적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복음이라는 용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1907년에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회적 복음의 역사를 제공합니다.

그럼, 좋아요. 이 책에 대한 다섯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까지는 이 책을 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여름에 책을 읽을 겁니다.

그럼,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까지는 읽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다섯 가지를 언급할 겁니다. 이는 Walter Rauschenbusch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회 복음 신학으로 옮겨가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복음의 역사.

그에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걱정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고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구약의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책의 두 번째 내용에서 그는 예수의 사회적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 병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 과부와 고아에 대한 예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물론 예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회적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책에서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책의 세 번째는 예수 이후로, 1세기 이후로, 예수 이후로, 예수의 삶과 사역 이후로, 교회에서 이런 종류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상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닌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크게 쇠퇴했으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의 세 번째 주제인데, 교회 내 사회적 이름의 쇠퇴입니다.

좋아요. 책의 4번째는 현재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론, 그는 헬스 키친에서 1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심이 없고, 돌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1907년, 저는 로체스터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헬스 키친에서 11년을 보낸 후에, 교회는 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좋아요. 그리고 책의 5번째.

책의 5번째는 인용문이고, 장의 제목이지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의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책의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 책을 쓸 때, 그는 로체스터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는 또한 전 세계 여러 곳, 주로 영국 세계와 독일 세계, 하지만 전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사회적 위기는 매우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책을 당신의 인생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 이 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당신은 책의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을 보고, 그가 사회 복음이 있었던 곳에서 사회를 설명하는 데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것, 사회 복음을 위한 신학에 대해 언급해 볼까요. 좋아요.

사회 복음을 위한 신학. 좋아요. 그리고 사회 복음의 신학을 통해 그는 사회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는 특정 주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판적인 주제를 전개할 겁니다. 사회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주제를 전개해야 합니다. 그는 1917년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그가 1918년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실수로 그가 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때 죽었다고 이전에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1차 세계 대전을 겪었고, 거의 겪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은 1914년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의 처음 3년을 살았고, 1차 세계대전의 파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1918년에 죽었고,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의 끝이었습니다. 좋아요. 사회 복음의 신학.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 분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여기는 세션 19, 미국의 사회적 복음입니다.